

해남, 비효율 사업 '일몰제' 적용

목욕 할인권·남북협력사업 등
심의 1건·자체 8건 발굴 추진
5억7,500만원 예산절감 기대
환경변화 대응 재정 효율성 강화

해남군이 필요성이 없어진 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올해 9개 사업을 '일몰' 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는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

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군은 전체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 일몰 1건과 자체일몰 8건을 발굴했으며 심의일몰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9건의 사업이 일몰됐다.

일몰대상사업은 전체 읍면에 공중목욕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어르신 목욕 할인권 지원사업이 폐지되었고, 남북관계 악화로 추진이 어려워 향후 전국단위 협의회와 연계해 진행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일몰하기로 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밤호박 안정 생산지원사업, 과수·채소 무농약인

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낙지 해수위 판장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 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사업, 오리 축산 햇별 투과시설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몰을 적용한다.

이번 시책일몰제를 통해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 과감히 일몰을 적용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며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필요한 신규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최근 개장한 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영암군 관계자 등이 진열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 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문 열었다

당일 수확·판매 원칙 만족도 향상
관내 7번째...농가소득 증대 기대

영암군은 최근 소상원 부군수를 비롯해 최병순 금정농협 조합장 및 지역 인사, 로컬푸드 관내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정농협 직매장은 영암군에 7번째로 개설된 직매장으로 금정농협 하나마트 내 약 100㎡

를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삽입샵 형태로 개설했으며 관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진열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가장 신선한 상태로 유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금정면은 아크로 골프장이 위치해 이 지역을 지나는 외지인들에게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군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흥도 섬 원추리 축제'를 최근 흥도 1구와 2구 등지에서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흥도 '섬 원추리 축제' 매력 알렸다

하루 500여명 관광객 방문
공연·이벤트 등 호응 속 성료

국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손꼽히는 신안군 흥도에서 열린 '섬 원추리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흥도 섬 원추리 축제'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흥도 1구와 2구 등지에서 한여름 축제를 개최했다.

흥도는 거친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섬으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가 절묘한 곳이다. 마을 곳곳마다 마련된 포토존과 신비로운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원추리 꽃을 보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매일 500여명의 방문객이 흥도를 찾았다.

축제는 유명가수들의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선보여 방문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방문객들은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펼쳐진 절경과 원추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식물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흥도원추리'는 다른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데, 질감이 곱고 관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자생 식물로서의 큰 가치를 지녔다. 흥도 지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꽃으로 인문·환경과 역사를 함께 해 오고 있다.

육지 주민이 보릿고개를 보낼 때 흥도 주민은 원추리 싹과 잎은 나물로, 뿌리는 전분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이겨냈다고 전해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흥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국내 최고의 식생, 철새들의 천국으로 신안의 보물같은 섬이다"며 "축제는 끝났지만 흥도 원추리 꽃은 8월 중순까지 피어 있기 때문에 섬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장흥-농식품부, 농촌협약...278억 확보

장흥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공모사업비 278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국가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촌협약은 농촌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던 기존의 단위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북부생활권인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생활권 활성화와 생활SOC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농촌협약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78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장평·유치·부산면 등 3개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13가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배 특화 음식개발 교육' 성과 공유회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음식을 개발하고 이 같은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나주시는 최근 금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일원에서 금천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추진한 '배 특화 음식개발 교육'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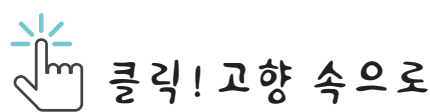
주민 교육생들은 이날 호남원예고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배 음료' 6종을 행사장 부스를 찾

은 주민 150여명에게 아낌없이 선보였다.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배 특화 음식개발 교육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차로 호남원예고 NCS교육실에서 진행됐다.

배를 재료로 배정, 배 에이드, 배 스무디, 배떡, 배양갱, 배 푸딩 등 매주 다른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했으며 투표를 통해 공유회에 선보일 음료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주)대원수산 김호웅 대표, 멸치 기탁

강진군은 최근 ㈜대원수산 김호웅 대표가 3,000만 원 상당의 멸치 1,000상자를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멸치는 강진군 관내 경로당,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 대표는 "평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보며 작게나마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

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과 상생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나눔과 봉사가 모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이뤄진다"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나눔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유니세프함평군후원회, 인재양성기금 전달

함평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20일 "유니세프함평군후원회(회장 이재갑)에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으로 최근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함평군후원회는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

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2018년부터 매년 200만 원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 뜻을 받들어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장성, 벼 공동방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지구 온난화와 이상고온 등으로 벼 병해충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성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벼 재배 전 면적을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공동방제 방식을 도입해 시행

해왔다.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령농가의 농작업을 경감해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에는 병해충 발생 시기를 고려해 전년보다 일주일 정도를 앞당겨 방제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 벼 재배 농업인으로, 약제비 포함 1ha당 15만~18만원을 지원한다.

/장성=전일용 기자